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1호 [무게 제25324호] 주제105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 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 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200일전투의 창조대전에서 통쾌하고 가슴부편한 승전포성을 울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자위적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사회주의조선의 발흥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새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메아리쳐 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를 그 누구

도 무시할수 없는 핵억제력을 갖춘 필승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윤러세우시여 조국과 민족의 안전, 후손만대 무궁번영할 삶의 터전을 굳건히 담보해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담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전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들뜨은 위훈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필승의 보검인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높이 국방과학연구와 군수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식의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그 어떤 원수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23일과 2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쿠바의 브린카 리버나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10》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이번 시험발사가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28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의원들은 박철한 사상과 정력적인 명도로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었으며 한평생 인민행렬자를 다시고 조국의 풍성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우교야말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제시하신 전무적파업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스림 따서해나가기 위한 건설 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할것을 당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지원에 고무된 전체 건설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200일전투의 날과 날들을 눈부신 위훈창조로 빛내임으로써 려명거리완공의 날을 앞당겨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려명거리건설을 지원

의원들은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고 헌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작공후 불과 몇달사이로 현대적인 새 거리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낸 려명거리건설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당의 명도를 충정

본사기자